

한국소설 무대 해외로 넓혀간다

러시아, 중국, 호주, 유럽 등 외국 배경의 소설 다수 등장

국내에 국한되어 있던 한국소설의 무대가 외국으로 그 공간을 넓혀나가고 있다.

최근 출간된 채희문씨(38)의 장편 《슬픈 시베리아》(현암사)가 시베리아 등지의 러시아를 무대로 하고 있고, 조성기씨(44)의 소설 집 《우리는 완전히 만나지 않았다》(세계사)에 수록된 작품들은 여행경험을 소재로 하여 돈황과 베네치아와 트리어지방 등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조정래씨의 장편 대작 《아리랑》(해냄)은 한말 격동기에 조국을 떠나야 했던 선조들의 행적을 뒤쫓아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하와이 등지로 무대를 넓혀가고 있으며, 이상문학상 수상자인 윤후명씨(49)씨의 중편 《하안배》(문학사상사)는 기행소설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러시아의 카자흐스탄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 외에도 호주 이민의 실상을 파헤친 김인숙씨(40)의 장편 《시드니 그 푸른 바다에 서다》(푸른숲)와 남북한, 쿠바, 베트남, 중동 등지를 배경으로 한 안동일씨의 장편 《해빙》(돌베개)도 해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련의 경향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외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 급증하고 있는 이같은 추세는 과거와 견주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허구적 공간에서 현실적 공간으로

물론, 과거에도 외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이 다수 창작된 바 있다. 이상문의 《황색인》,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과 같이 월남전의 참전 경험을 그려나간 소설들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최인훈의 《열하일기》, 한용환의 《이방에서》와 같이 정치적 억압이 혹독했던 시절에 탄압을 비껴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외국을 소설공간으로 빌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 이문열의 《들소》처럼 작가가 의도하는 어떤 예술적 성취를 위해 우화적인 수법으로 외국을 배경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등 특정 지역을 다룬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작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외국이라는 무대는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소설상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적 공간에 가까웠다. 알레고리를 위한 효과적 장치, 혹은 이상향이나 탈출구를 의미하는 상징으로서 주로 등장했던 그 허구적인 공간들은 그나마 작가나 독자들의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한국전쟁 후의 황폐한 삶

해외를 배경으로 씌어진 소설들이

연이어 출간되고 있다.

과거에 외국을 무대로 한

몇몇 소설들이 특정 국가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근래에는 그 배경 공간이

세계 전역에 걸쳐 있어

소설의 무대 자체가 광범위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 터전 위에서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 소위 '한국적 사실주의'가 한국근현대문학사 속에서 확고부동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이 추상화된 공간은 근본적으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릴 수 없었던 것이 주된 이유이다.

그 추상화된 공간이 갑자기 현실적인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소설의 무대로 빈번히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해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점을 꼽을 수 있다. 거의 때를 같이해서 갑자기 밀려들어온 정보화시대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세계의 간격이 현격히 줄어든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각종 대중매체들이 시대적 흐름을 쫓아 경쟁적으로 해외를 국내에 소개했고, 해외여행 붐이 형성된 가운데 작가들의 국외 나들이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작가들의 경험세계의 공간적 확대는 소설의 무대를 공간적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 공간은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더 이상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의 확대, 사상의 빈곤

소설의 무대가 국외로 넓어지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 독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나쁠 게 있겠느냐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반기는 축에서부터 '얼마나 이 나라가 답답하면 그러겠느냐'는 식으로 이해하려는 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은 찾지 못했다.

문단의 시각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다. 소설가 김주영씨(56)는 '안목을 넓히고



해외를 무대로 한 최근 소설들.

소재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공핍이 겹쳐 그동안 우리 작가들은 우리나라 이외의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호전되면서 작가들은 안목을 넓히는 한 수단으로서 해외로 눈을 돌렸고 그만큼 소재 선택에 있어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소설가 김향숙씨(44) 역시 소설세계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작가들의 다양한 경험이 소설상에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래도 한걸음 멀어져서 보면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을 테구요. 우리 소설이 세계를 넓혀가는 과정인 만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로 문학평론가 김윤식씨(59)는 보다 중도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 소설의 무대가 해외로 확대되는 것을 일단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그같은 현상을 반드시 바람직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좋게 보면 작가들이 상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사상의 빈곤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문학평론가 정호용씨(36)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체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밝은 전망을 내비친다. '낯설고 새로운 것을 접함으로써 체험 공간을 넓혀나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작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신적 세계의 확대 동반돼야

세계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사상의 빈곤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안은 채, 소설의 무대가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통신

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국내와 국외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급기야는 국가라는 개념조차 퇴색하고 있는 세계적인 '물결' 속에서, 소설을 비롯한 예술 전반의 무대가 세계로 넓어져가는 것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문단 전반에 걸쳐 하나의 경향을 형성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질곡의 수난사를 거친 우리 내부에는 무궁무진한 소재가 산재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고갈된 소재를 구하기 위해 외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는 그런 까닭에 설득력이 없다. 거기에 정당한 이유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소설무대의 공간적 확대가 정신적 세계의 확대를 담보로 하고 있어야 한다.

서점가에서 만난 최모씨(대학원생, 25)의 이야기는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외국을 배경으로 하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부 젊은 작가들 작품 중에는 국내를 배경으로 해도 될 것 같은 내용인데도 굳이 이야기를 해외로 끌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왜 배경이 해외인지'를 설명할 수 없는 소설은 '독자의 흥미 유발을 노린 상업주의와의 결탁'이라는 누명을 벗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동림 기자